



광주 FC 선수단이 1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안산 그리너스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4-0 대승을 거둔 뒤 경기장을 찾은 팬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FC 제공>

광주FC 5위 확정...승격 불시 살렸다

시즌 최종전 안산 4-0 대파 나상호 16호골로 득점왕 아산 변수 따라 준PO 가능성

2018시즌 폐막전이 광주 FC의 잔치날이 됐다. 광주가 11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안산 그리너스와의 2018 K리그 2 36라운드 시즌 최종전에서 4-0 대승을 거두며 화려한 대미를 장식했다. 많은 의미가 담긴 승리였다. 일단 광주는 이날 승리로 승점 2점 차로 추격하던 FC 안양을 따돌리고 5위를 확정했다. 오는 19일 K리그 2 우승팀인 아산 무궁화가 선수 수급 방안을 내어놓지 못할 경우, 5위 광주는 준플레이오프에 참가해 '승격'에 도전할 수 있게 된다.



1일 안산전에서 시즌 16호골에 성공하며 K리그 2득점왕에 오른 나상호가 경기 끝난 뒤 하트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광주 FC 제공>

하지만 여름이 김정환 발 맞고 뒤로 흐른 공을 잡아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안산의 골대를 갈랐다. 전반 40분에는 선제골의 시작점이었다. 두아르테가 직접 공을 마무리했다. 왼쪽에서 치고오르던 나상호가 오른쪽으로 크로스 한 공이 상대 골키퍼 손에 맞은 뒤 두아르테 앞으로 굴렀다. 가슴으로 공을 잡은 두아르테는 왼발로 슈팅을 날렸고, 잠시 뒤 골 세리머니를 펼쳤다. 그리고 전반 종료 직전에는 나상호가 득점왕 탄생을 알리는 추가골을 넣었다. 나상호는 김정환이 페널티 박스 바로 바깥쪽에서 얻어낸 프리킥 상황에서 키커로 나서 직접 골대를 겨냥했다. 나상호의 오른발을 떠난 공은 낮고 빠르게 오른쪽 골대를 뚫었다.

시즌 1위를 가져갈 수 있었던 상황. 하지만 나상호는 멋진 골과 함께 안양과 알렉스의 추격을 무위로 돌렸다. 후반에도 광주의 공세는 거셌다. 후반 25분에는 안양 최명희가 여봉훈에게 발목 태클을 하면서 레드 카드를 받고 퇴장당하면서 수적 우위로 점했다. 그리고 계속된 유효 슈팅 퍼레이드의 마침표를 두아르테가 득점으로 찍었다. 후반 추가 시간 나상호의 슈팅이 골키퍼를 맞고 튀어나왔고, 두아르테가 침착하게 왼발로 골대 왼쪽을 겨냥하며 멀티골에 성공했다. 득점의 포문을 연 여름은 "복귀하고 성적이 좋지 않아서 마음고생이 심했다. 희망이 보인 경기여서 다행이다. 플레이오프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나 이기고 싶었다. 경기 전 꼭 경기장서 공을 넣고 싶었는데 뜻을 이뤄서 기분이 좋다"고 소감을 말했다. 최종전에서 16번째 골로 득점왕에 오른 나상호는 "프리킥이 났을 때 자신이 있었다. 코치님, 감독님과 연습했던 위치였기 때문에 이런 골이라고 생각했다. 세계 차는 부분이 있었는데 70~80%로 차면서 골을 넣으려고 했다"며 골 상황을 설명한 뒤 "2년 차에 득점왕이란 타이틀을 얻게 돼서 영광이다. 앞으로도 많은 목표를 달성하면서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일단 (A매치) 데뷔전에 가면서 데뷔골을 넣는 게 목표"라고 각오를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박진섭 감독 "기회 된다면 나의 축구 더 보여주고 싶어"

"선수들에게 감사하고 홈에서 좋지 못했는데 팬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좋다."



르치면서 나의 축구와 광주를 살리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다. 전체적으로 반도 못 한 것 같다. 상황이 긴박하게 흘러갔고, 승점 차가 좁혀져 있어서 압박감도 있었다. 시즌 후반에 비기고 이기지 못한 경기들도 아쉬웠다. (내년에도) 기회가 된다면 나의 축구를 더 보여주고 싶다"고 언급했다. 확실한 '박진섭의 축구'에는 부족했지만 그래도 소독과 희망은 있었다. 박 감독은 "승점 면에서는 계획한 대로 비슷하게 이루기는 했다. 마지막까지 팀이 (준플레이오프) 희망을 가지게 됐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까지 정신을 놓지 않고 하

나 되어 끌고 온 것은 좋은 점이다"고 자평했다. "박진섭"의 첫 행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는 19일 선수 수급 문제에 봉착한 우승팀 아산 무궁화가 승격 자격을 잃게 되면 5위 광주에 준플레이오프 자격이 주어진다. 박 감독은 "좀 쉬면서 휴가를 보내게 할 생각이다. (플레이오프 진출이 결정 안 된 만큼) 일단 19일까지 여유를 갖고 보내겠다. 부상자 체크도 하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준플레이오프를 준비하게 되면) 처음부터 수비, 미들 부분 모두 처음부터 하려고 하고 새로 준비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산행안내

11월 14일(수)
▲광주청룡산악회 11월 14일(수) 경남

광주금강산악회 11월 17일(토) 고흥 거금도 적대봉(592m), 봉선동 롯데마트 앞 07:10, 진월동 식자재마트 앞 07:20, 영주체육관 07:30, 한국병원 앞 07:40, 문예회관 후문 07:50, 비엔날레 주차장 입구 08:00 *다음카페 광주금강산악회 ☎ 010 6294 2678, 010 3620 2284

광주호산회 11월 17일(토) A코스-가덕도 연대봉산행 B코스-돌레길, 05:30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6:00 롯데백화점, 06:15 예술회관후문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11월 18일(일) ▲전남산악회 11월 18일(일) 보령 오서산 (791m) 영주체육관 07:30, 운진각앞, 양동시장, 광주역 08:00, 두암동홈플러스 08:10 *다음카페 전남산악회 ☎ 010 3642 5197, 010 5378 5702

11월 25일(일) ▲광주자연보전당사회 11월 25일(일) 해남 두류산 투구봉(703m), 영주체육관 06:40, 무등경기장 07:00, 동광주홈플러스 07:20 *다음카페 광주자연보전당사회 ☎ 010 3666 3291, 010 2663 0304

SK "한국시리즈 오늘 끝낸다" 두산 "마지막 7차전까지 간다"

오늘 6차전 선발투수 켈리 vs 이용찬



켈리



이용찬

SK 와이번스가 1승만 더하면 8년 만에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정상을 노린다.

SK는 지난 10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2018 신한은행 마스터즈 KBO 한국시리즈(7전 4승제) 5차전에서 4-1 역전승을 거뒀다.

3회 두산 정진호에게 선제 솔로 홈런을 얻어맞아 끌려가다가 7회말 1사 2루에서 김성현의 좌중간 2루타로 균형을 되찾은 뒤 이어진 1사 3루에서 김강민의 희생플라이로 역전 결승점을 뽐냈다.

8회에도 밀어내기로 왜기점을 올리는 등 2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한 김성현은 KBO가 선정하는 데일리 MVP(최우수선수)로 선정돼 상금 100만원도 받았다.

SK 세 번째 투수로 0-1로 뒤진 7회 등판해 2이닝 동안 1피안타 1볼넷 1탈삼진 무실점 투구로 역전승의 발판을 놓은 좌

완 불펜투수 김태훈이 구원승으로 자신의 포스트시즌 첫 시리즈를 수확했다.

잠실 원정에서 1승씩 나눠 갖고 인천으로 돌아와 3차전을 이긴 SK는 전날 4차전에서 1-2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지만 이날 승리해 시리즈 전적 3승 2패로 다시 앞서나갔다.

SK는 두산의 홈인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6, 7차전 중 한 경기만 승리하면 2010년 이후 8년 만이자 통산 4번째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한다.

역대 KBO 한국시리즈에서 2승 2패 후 5차전 승리 팀은 총 8번 중 6차례(75%)나 우승했다.

하루 뒤 두 팀은 12일 오후 6시 30분 6차전을 벌인다.

SK는 외국인 에이스 메릴 켈리, 두산은 올시즌 토종 투수 중 최고의 활약을 보인 이용찬을 6차전 선발투수로 예고했다. /연합뉴스

기성용 플타임 활약...팀 승리 기여

뉴캐슬, 본머스 2-1 승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뛰는 미드필더 기성용이 70일 만에 선발로 나서서 플타임 활약하며 팀 승리에 기여했다.

기성용은 11일 영국 뉴캐슬의 세인트 제임스파크에서 열린 본머스와 2018-2019 EPL 12라운드 홈경기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전반 90분을 플타임으로 뛰었다.

기성용의 선발 출전과 플타임은 지난 9월 2일 맨체스터 시티전 이후 70일 만이다.

지난 4일 왓퍼드전에 교체 출전해 시즌 1호 도움을 기록했던 기성용은 이날 공격과 수비의 연결고리로 경기를 조율했다. 또 프리킥과 코너킥 등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전담 키커를 맡아 날카로운 크로스를 배달했다.

홈 뉴캐슬이 이른 득점으로 기선을 잡았고, 지난 시즌까지 웨스트브롬에서 뛰었던 호세 솔로몬론돈이 해결사로 나

섰다.

론돈은 전반 7분 오른쪽 측면을 돌파한 디안드레 에틀링이 크로스를 해주자 강한 슈팅을 날렸다. 론돈은 공이 상대 골키퍼 편으로 튀어나오자 재차 슈팅해 골망을 흔들었다.

론돈은 전반 40분에도 또 한 번 본머스의 골문을 갈랐고, 기성용이 추가골의 기점 역할을 했다.

기성용이 오른쪽 후방에서 반대편을 보고 톱패스를 했고, 로버트 케네디가 문전으로 파고든 론돈을 향해 크로스를 띄웠다. 론돈은 수비수 사이를 헤집고 달려들며 헤딩슛으로 연결해 본머스의 골문을 꿰뚫었다.

이후 기성용은 정교한 프리킥 크로스를 배달하며 2-0 리드를 주도했다. 반격에 나선 본머스는 전반 추가시간 제페르손 레르마의 헤딩골로 한 골을 만회했지만 뉴캐슬의 2-1 승리로 끝났다. 뉴캐슬은 이날 승리로 2연승을 포함해 3경기 무패(2승 1무) 행진으로 시즌 2승 3무 7패(승점 9)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 산책

LOTTE CINEMA | 총장로관

1관	창귀
2관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3관	암수살인
4관	미스백
5관	창귀
6관	창귀
9관	미스백, 퍼스트맨, 사랑, 스무살
7관 씨네캐슬	미스백, 배논, 설록 놀즈
8관 씨네캐슬	스타 이즈 본, 스페이스 치킨, 노크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광주문화예술회관 공연안내

문의 (062)613-8353

광주문화예술회관 미술단체공모전 색으로 이야기하다	10.31~11.25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개관27주년 특별공연 당 타이손 피아노 리사이틀	11.7(수) 7:30pm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 Meet the our soul	11.28(수) 7:30pm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